

尹 당선인, 8개 부처 장관 후보자 발표

법무 한동훈·교육 김민철·외교 박건·통일 권영세·행안부 이상민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2차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8개 부처 중 3개 부처의 후보자를 국민의힘 현직 의원으로 선정하며 안정적인 인사청문회 통과를 꾀한 모습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민철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는 박건 국민의힘 의원, 통일부 장관 후

보자로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 후보자인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로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을 발탁했다.

2차 인선에 이름을 올린 후보자들의 평균 연령은 59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내각의 유일한 40대다.

그 밖에 50대가 3명(이상민, 이영, 조승환), 60대가 4명(권영세, 김민철, 박건, 한화진)이다.

출생지를 따지면 서울(권영세, 박건, 이영)이 3명으로 가장 많다. 경상북도(김민철), 부산광역시(조승환), 대전광역시(한화진), 전라북도(이상민) 등이 각각 1명이다.

8명 중 학부 기준 서울대가 4명(권영세, 박건, 이상민, 한동훈), 고려대가 2명(조승환, 한화진), 한국의대 1명(김민철), 광운대 1명(이영)으로 분

류된다.

성별로는 여성이 2명(이영, 한화진), 남성이 7명이다.

권영세, 박건, 이영 등 현직 의원이 다수 포함된 것도 눈 여겨 볼 지점이다. 특히 권 의원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 배경에 대해서 "저는 중진 의원이고 (국민의힘) 국회 의석수가 열세인 상황에서 새 정부의 정상적,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선 당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당선인 생각은 달랐던 것 같다"며 "당선인 뜻에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뉴스



'수요시위를 지키기 위한 대학생들의 목소리' 대학생생태계하나 관계자들이 13일 전북대학교 건자광장에서 수요시위를 지키기 위한 대학생들의 목소리 기자회견을 열고 연대 발언을 하고 있다.

전북도, 봄 신학기 식중독예방 합동점검 실시

민·관 합동 도·시군·교육청·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참여 학교·유치원 급식소 280개소 대상 유통기한 경과 등 집중점검

전북도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봄철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북도와 교육청, 시·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9개반 27명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학교·유치원 급식소 280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부패·변질 및 무표시 원료 사용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급식시설 및 기구 세척·소독 관리 등이다.

특히, 그간 위반율이 높았던 유통기

한 경과 제품 보관행위와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등 미비한 부분을 집중점검하는 한편 학교급식 다빈도 제공 식품, 조리음식 등을 수거해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경연 도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도 유치원·학교 급식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급식소 조리음식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성 기자

향토인재 장학생 선발

22일까지 인터넷 신청

선발 150명 · 지급액 100만원

전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전북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학업성적은 우수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도내 출신 대학생 150명을 선발해 총1억5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4월 15일부터 22일까지다.

전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누리집(www.jbs.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격기준은 2년제 이상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름)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3월 22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부모)의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돼 있는 자 또는, 타 시·도 거주자 중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도로 돼 있으면서 지원자(학생)가 도내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여야 한다.

성적 자격은 신입생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또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성적이 서울지역(4년제)은 평균 70점 이상, 지방과 전문대는 평균 60점 이상, 예체능 및 장애인 은 평균 50점 이상이며, 재학생은 전체학년 평균 B학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선발방법은 학업성적 50점, 생활정도 0점으로 평가해 시·군별 배정 인원에 따라 진흥원 장학생 심사위원회에서 확정하고, 6월 중에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276-8309)로 문의하면 된다. /유호성 기자

“정리·수납 무료로 신청하세요”

정리수납 필요한 지원자 모집... 내달 6일까지 선착순 접수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전정희, 이하 센터)가 정리수납이 필요한 지원자들을 모집해 정리수납 무료서비스를 시행한다.

센터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9로 인해 실내 생활 시간이 많아져 정리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정리수납전문가'를 인식하고, 의뢰하고 있다. 반면, 주부들과 맞벌이가정에서는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센터는 정리수납을 희망하는 가구 또는 사무실을 대상으로 무료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정리수납 전문가 공동체 창업 직업교육훈련을 2개월간 운영할 예정으로(4.19-5.31), 정리수납 분야 전문교육을 받은 훈련생을 활용해 정리수납 1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강사와 함께, 정리수납 무료서비스를 진행한다.

지원자는 선착순으로 접수 받으며, 5월 6일(금)까지 모집한다. /유호성 기자

신청서 작성 시에 주거현황과 원하는 서비스지원 요청사항을 선택하면 된다. 서비스 기간은 상담 후에 결정되며, 하루에 한 공간씩 진행한다.

센터는 특히, 정리수납 무료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가정에는 가사 부담을 덜어주고, 직업교육훈련생들에게는 현장 실습을 통한 경험적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직무수행 능력이 빠르게 향상되며, 향후 성공적인 공동체창업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홈페이지(www.jwc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또는 전북새일센터(063-254-3655)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유호성 기자

도, '대구 국제 그린에너지 엑스포' 참가

전북도가 13일부터 15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제19회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에 참가해 기업 및 관람객에게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홍보, 투자유치 활동에 나선다.

탄소중립,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에너지 안보 문제 등 미래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25개국 핵심 기업 251개 사가 참여한다.도는

한국영어총공사와 공동으로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새만금 산업단지의 투자환경 홍보 및 상담 활동을 한다.

특히, 타지 기업을 직접 찾아가 사전 준비한 새만금 투자유치 안내책자와 팸플릿을 배포하고, 투자 환경에 대해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호성 기자

도-도공무원노조, 노사 손잡고 '순항'

새로운상생 비전 제시

전북도와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북노조)은 지난 2월 25일 송하진 도지사과 송상재 노조위원장이 단체교섭을 위한 노사 상견례 이후 ▲균형 있는 인사조직, ▲도민만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 위한 교섭이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노조는 '빨간 머리띠 노조는 그만', '스마트한 노조'를 만들어 투쟁보다는 합리적 타협을 만드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시대적 상황으로, 조합원들의 행복 지수 상승을 통한 도민 행정서비스 강화를 유도하는 노조의 상을 다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노조의 합리적인 단체교섭안 제시에 전북도도 조합원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행복 지수와 연관된 사안이라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타협점을 찾고 있어, 노사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선순환적인 노사관계 구축의 청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송상재 전북노조위원장은 "지난번 송하진 도지사와 단체교섭 상견례에서 함께 얘기했던 상생과 신뢰를 바탕으로, 도정의 소중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함께 할 것"이라며 "소통과 합의 및 상호이해와 존중이 우선돼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북도가 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유호성 기자

제42회 장애인 날 기념 제16회 전국 장애인 가요제

전국의 장애인 여러분!
제16회 전국 장애인 가요제가 아래와 같이 실시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 참가자 대상: 만16세 이상 장애인 누구나
- 참가제외: 전국대회에서 대상, 최우수상 수상자, 가수활동자 제외
- 참가접수: 신청서 1부, 장애인등록증 사본(증명서)
(국명, 성명, 전화, 주소 기입, 개인,그림 촬영)
- 접수방법: 방문, 전화(063)236-6678, 팩스(063)237-6676
* 방문주소: 전주시 덕진구 건삼로 1, 5층
- 예 선: 2022.06.05.(일) 오전 10시(동남문화광장)
- 본 선: 2022.06.05.(일) 오후 2시(동남문화광장)
- 개회식, 공연, 경연, 평론권 추첨 등

○ 일 시: 2022.06.05.(일) 오전 10시
○ 장 소: 전주 동남문화광장(동남문 열)

○ 주 최: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 주 관: 전라북도 장애인 문화예술봉사단, 전주매일신문사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라북도 장애인 문화예술봉사단
☎ 063-286-6678 ☎ 063-287-6676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